



한국 다문화 TV 프로그램에서의 이주민 · 외국인 재현 장르별 차이와 시기별 변화*

김초희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김도연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본 연구는 국내 텔레비전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양적 분석하여 그동안 개별 프로그램 분석에 머물렀던 다문화 프로그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내용분석 해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인종과 이주 유형별 재현율, 장르에 따른 집단별 재현 정도의 차이, 그리고 시기별 변화를 분석했다. 실제 인구 대비 프로그램 내 재현 비율인 재현율 분석 결과 백인의 재현율이 유색인보다 높았고, 이주 유형별로는 전문인력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재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단순기능인력 이주노동자는 매우 낮았다. 장르별 재현 빈도 차이의 경우, 교양 프로그램에서 유색인의 재현 빈도가 백인보다 높은 데 비해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인종 간 차이가 없었다. 이주 유형별로는 교양 프로그램에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가, 오락 프로그램에는 전문인력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재현됐다. 마지막으로 방송 시기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전문인력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 재현이 줄고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재현이 증가하여 이주 유형별 재현 빈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백인이 유색인보다 많이 재현되는 인종별 재현에는 변화가 없었다.

핵심어: 다문화 프로그램, 다문화주의, 외국인 재현, 이주민 재현, 인종주의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하고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chee27@naver.com, 제1저자

*** dohyeonk@kookmin.ac.kr, 교신저자

1. 서론

한국 거주 외국인의 수는 매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¹⁾ 외국인 및 이주민 수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했다. 텔레비전도 사회적 변화에 부응해 다문화를 주제로 이주민과 외국인을 프로그램 전면에 내세우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시작했다. 2003년 MBC의 <느낌표 - 아시아! 아시아!>를 기점으로 시작된 텔레비전의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²⁾은 이후 KBS <러브 인 아시아>, <미녀들의 수다>, JTBC <비정상회담>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유행처럼 확산되었다.

이주민과 외국인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은 사회 구성원의 다문화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로 다문화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다문화 관련 미디어 연구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의 비중은 그 중요함에 비해 낮았다. 지금까지 수행된 제한된 수의 연구들은 대개 1-2 개 정도의 특정 다문화 프로그램에 국한해 프로그램 내용이나 제작 방식 등을 분석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반면 다문화 프로그램이라는 범주 전체를 관통하는 종합적이고 양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개별 프로그램 분석만으로는 연구 결과를 다문화 프로그램 전체에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프로그램의 장르나 차별적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차이와 시기별 변화 같은 보다 심화된 분석을 시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다문화 프로그램의 재현 양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한 상황에서는 다문화 프로그램이 수용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론하는 것도 선부르다. 다문화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용자 효과 연구를 위해서도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화된 분석과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이 과연 한국의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매우 제한된 현실점에서 이 질문에 명쾌히 대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문화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활용될 경우 끌어낼 수 있는

1) 2017년 8월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06만 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0여 년 전(2006년, 91만 명)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

2)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 및 외국인 관련 주제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을 텔레비전의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지칭했으며, 이하에서는 편의상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줄여서 표기했다. 이런 방식이 자칫 다문화의 범위를 인종적 측면에만 한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주민 및 외국인 관련 TV 프로그램을 '다문화 프로그램'이라 칭해온 학계의 관례(김예란·유단비·김지윤, 2009; 백선기·황우섭, 2009; 심훈, 2012; 이인희·황경아, 2013; 이현정·안재웅·이상우, 2013; 정연구, 2009; 홍숙영, 2013)를 따른 것으로, 인종적 다양성만을 다문화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잠재적 혜택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논의(예를 들어, 강아연, 2008, 1, 24; 안진, 2015; 원용진, 2003; 팀 알퍼, 2014, 10, 13 등)도 의미 있지만, 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한 건설적 제언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방송된 다문화 프로그램들에 대한 종합적인 양적 내용분석은 그 진단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본격적 다문화 프로그램이 첫 탄생한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주민과 외국인의 집단별 재현 정도를 내용분석 했다. 구체적으로, 이주민과 외국인 집단을 인종과 이주 유형으로 분류해 다차원적 분석을 진행하였고, 더욱 심층적인 진단을 위해 장르에 따른 차이와 시기별 변화에 대한 통시적 분석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종합적인 분석이 부족해 제한적이었던 다문화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와 제언들이 향후 다문화 프로그램 제작에 긍정적으로 활용되어 진정한 다문화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선행 연구 논의와 연구 문제

1) 다문화 프로그램의 영향력

다문화와 관련해, 미디어는 수용자가 인종을 정의하고, 인종별 이미지를 형성하고, 인종 관련 이슈를 이해함으로써 인종적 범주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조력자 역할을 한다(Hall, 1981). 특히 텔레비전은 그 독보적인 영향력 때문에 다문화 이슈에서도 많은 관심과 우려를 받아왔다. 우리나라보다 다문화 경험이 앞선 외국의 사례는 이에 대해 큰 시사점을 준다. 영국에서 다문화 방송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방송 규제기관들³⁾과 BBC가 공동으로 주도한 연구에 의하면, 영국 시청자들은 소수 인종 이주민이 방송에 많이 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송이 다른 미디어에 비해 사람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영국의 방송 종사자들도 다문화 이해를 높이고 인종별 재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소수 인종 재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그것이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Hargrave, 2002).

다문화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권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

3) BSC(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RA(Radio Authority)로, 현재는 오프콤(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으로 통합됐다.

가 필요하다. 방송이 이주민과 외국인을 골고루 재현하지 못할 경우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야기하고 지속시킨다. 그런 조건 아래서는 이주민의 자녀들도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다문화주의보다 동화주의에 순응하게 된다. 예컨대 특정 인종 집단의 재현이 부족할 때 사회 구성원들은 해당 집단에 대한 소수의 전형적 묘사만 접하게 되어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우려가 있다(Hargrave, 2002). 이는 소수 인종 집단에 대한 주류 사회의 차별적 처우를 고착시켜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생성하고, 소수 인종 구성원들이 주류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해 그들의 사회 참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Faber, O'Guinn, & Meyer, 1987). 그 결과, 최근 유럽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듯, 지속적 배제와 차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사회의 하층 계급으로 인식한 이주민들이 범죄와 폭동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다(윤인진 등, 2010).

한편, 문화 다양성을 확보한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타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돕고 편견을 감소시켜 구성원의 화합에 기여하고 현대 사회의 필수 능력이 되어가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타문화와의 커뮤니케이션 기회는 무역 등 상업 활동, 관광, 노동, 교육, 결혼 등 여러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 내 오해나 갈등 또한 찾아지고 있다. “상호 관계적, 상호 의존적 글로벌 공동체”(Samovar, Porter, McDaniel, & Roy, 2013/2016, 1쪽)에 속하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다양한 이슈들과 맞물려있다. 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미디어 이용이며(이수범·장성준, 2011), 효과적인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타문화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박기순, 2003)는 면에서 제대로 된 다문화 프로그램은 시청자에게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2) 해외 미디어의 이주민 및 외국인 재현

미디어의 불균형한 인종별 재현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문화가 일찍이 발생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연구자가 미디어의 소수 인종 재현을 분석해왔다. 오랫동안 이어진 연구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에서도 유색 인종의 상대적 과소 재현(under-representation) 문제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신문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 중 78%가 미디어가 소수 인종 차별을 조장한다고 생각한다. 파키스탄 출신 이주민의 경우 무려 94%가 이에 동의했고, 주류 인종인 백인조차 4명 중 3명(76%)이 ‘미디어가 인종 차별을 부채질한다’고 응답했다(Burrell, 2014, 1, 9). 대표적 다문화 국가인 호주에서도 텔레비전 광고가 호주의 인종별 인구 구성에 비해 소수 인종/민족을 충분히 재현하지 않았고, 왜곡된 재현도 하고 있었다(Higgs & Milner, 2005).

인종 연구(Ethnicity Study)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랜 미국에서는 텔레비전의 소수 인종 재현에 관한 연구가 어느 나라에서보다 왕성히 진행되어왔다. 초창기 미국은 다양한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보다는 인종 간 위계를 전제로 타민족을 미국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문화적 다원주의’ 국가였다. 그렇게 백인 외 모든 인종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정상으로 여겨지다가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끈 인권 운동으로 흑인 인권과 인종 평등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어 소수자 권리 운동으로 이어졌다. 1980-90년대 이후 소수자/다문화 운동은 더욱 활발해져 현재의 다문화주의를 이루어왔다(이상길·안지현, 2007).

이런 변화에 맞춰 1960년대부터 텔레비전의 소수 인종 재현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1977). 초기에는 흑인 재현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다가 이후 라티노와 아시안 등으로 관심이 확대되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미국의 텔레비전은 끊임없이 ‘백색’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표현했다. 당시 텔레비전의 재현만 보면 미국은 백인만의 나라였고, 백인 외 인종은 하인이나 문지기 정도의 작은 비중으로만 표현됐다. 아예 재현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고정관념 등 여타 문제를 따질 여지가 별로 없었다(Downing, 2014). 이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미국 텔레비전은 소수 인종, 구체적으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본격적으로 재현하기 시작했다. <넷 킹 콜 쇼>(The Nat King Cole Show), <뿌리>(Roots), <코스비 쇼>(The Cosby Show) 등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 사례다. 특히 <코스비 쇼>는 기존 묘사들과 다르게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족을 성공한 전문직 중산층으로 그렸고 프로그램의 질도 높아 많은 비평가와 학자의 찬사와 시청자의 오랜 사랑을 받았다(Miller, 2016).

하지만 흑인의 재현이 늘어나는 동안에도 라틴계 및 아시아계 인종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미디어 속 부재는 계속됐고(Downing, 2014), 1990년대 이후 이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본격화됐다. 여러 연구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광고 등을 내용분석 해 미디어 속 라티노, 아시안, 아메리카 원주민의 낮은 재현율을 확인했다(Mastro & Greenberg, 2000; Taylor & Bang, 1997). 마스트로(Mastro, 2009)는 2000년대까지도 텔레비전, 영화, 광고 등의 미디어에서 백인과 흑인을 제외한 인종들이 실제 인구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고, 등장해도 대부분 인종별 전형적 이미지로 표현됐다고 지적했다.

3) 한국의 다문화 인식

한국 미디어의 외국인 재현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한국의 특수한 다문화 상황과 인종주의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서구 국가들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투자, 전문직 취업, 결혼 등 여러 형태와

목적으로 이민을 대거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사회 내 인종별 계급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정치적 갈등, 폭동, 잘못된 다문화 정책 실행 등의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다(김도진, 2015; 이상길·안지현, 2007; 천지우, 2007, 1, 24). 반면 한국은 최근 10-20여 년 동안 농촌 지역의 혼인 연령대 여성 부족과 3D 직종의 인력 부족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동남아시아 등 특정 국가로부터 급작스럽게 외국인 이주를 받아들였다.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다문화가 이행되느라 이에 대한 경험과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다(이인희·황경아, 2013).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주의 대응은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지형에서 주의 깊게 고려할 부분은 한국인의 마음 깊이 내재된 ‘정신적 식민주의’다. 한국인 이외의 유색 인종은 괘시하면서 백인은 높이 보는 특수한 인종주의 양상이 그것이다. 이는 한국인의 ‘내재화된 오리엔탈리즘’, ‘정신적 식민화’ 등의 용어로도 표현되지만, ‘백인 > 한국인 > 한국인 외 유색인’ 순으로 이어지는 인종 서열화 양상을 본 따 ‘삼분법적 인종주의’라 부를 수 있다. 백인도, 유색인도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한국에서 심각한 인종 차별을 당하는 이는 백인보다는 대개 한국인보다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이다.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정연구(2009)의 인식 조사에서 한국 성인과 청소년은 모두 미국과 유럽 출신 외국인을 여타 외국인보다 호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각 나라에 대한 관심도 측정에서도 성인과 청소년 모두 미국과 유럽이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주로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대변되는 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해서는 “지저분하다”, “범죄율이 올라간다” 등의 부정적 견해에 과반수가 동의했다.

한국 사회의 삼분법적 인종주의는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로부터 물려받은 이분법적 인종주의(‘백인 > 유색인’)에 한국인을 추가한 모형이다. 미국에서 사람들은 ‘백인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로 분류되곤 했다. 아프리카인, 라티노, 아시안 모두 피부가 희지 않으면 그저 유색 인종 그룹에 속하며(Downing, 2014), 백인은 다른 모든 인종의 위에 위치한 정상적이고 우월한 지배 계층으로 간주됐다. 이는 서구가 제3세계 지배와 식민화를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한 제국주의적 인종주의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지배할 때 내세운 논리는 그들이 미개하고 덜 발달한 문화를 가진 불쌍한 사람들이므로 자신들의 문화에 동화시킴으로써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이었다(Samovar et al., 2013/2016). 지배를 당하는 식민지 국민들조차 잠재의식 속에 백인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열등 콤플렉스와 백인화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면서 경제·정치·지리적 식민화를 넘어서 정신의 식민화가 이뤄졌다. 한국의 삼분법적 인종주의는 이런 과정이 조선 말기 서구 열강의 침탈과 일본의 식민 지배, 그리고 해방 후 미군 점령과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최고 지배계층과 최하 계층 중간에 한국인을 집어넣으며 변형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여기서 일본은 저항의 대상이자 모방의 모델로, 한국도 백인화를 통해 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더욱 강화했다(하상복, 2012).

백인 선망과 유색인 괘시라는 인종별로 차별화된 태도는 미디어에 의해 유지·강화되면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고 있다. 텔레비전에서 한국식 인종주의에 기반한 출연자 선정은 방송 제작자의 인종 인식과 그에 동의하는 시청자의 반응(시청률)을 통해 지속된다. 안진(2015)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프로듀서가 출연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비주얼’이며, 이에 따라 “한국을 사랑하는 잘생기거나 인상이 좋은 매력적인 백인”(112쪽)이 1순위 섭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제작자들은 백인을 우선 섭외하는 이유에 대해 그들 자신의 백인에 대한 동경심도 작용하지만 무엇보다도 백인을 다룬 프로그램이 형식과 장르에 상관없이 시청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시청자가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로 나르시시즘, 즉 자아도취에서 오는 만족감을 언급했다. 영국 출신 언론인 팀 알퍼(2014, 10, 13)는 신문 칼럼에서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한국인을 즐겁게 하는 요소로 ‘금발머리들’을 출연시키며, 이런 프로그램들은 끊임없이 한국 문화와 백인의 문화를 비교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제2요소인 유색인에 대한 괘시와 온정주의는 백인의 인정을 통한 나르시시즘의 뒷면일 수 있다. 우월한 백인의 세계에 소속될 때 느끼는 만족감과 마찬가지로, 열등한 유색인의 세계와는 거리를 두고 그들을 동정의 대상쯤으로 바라보면서 얻는 우월감 역시 한국인을 만족스럽게 하는 듯하다. 사람들은 쉬려고 TV를 틀었을 때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보더라도 나오는 다른 세계의 불쌍한 존재로서 자신의 우월감을 충족시켜주는 용도로 만족한다. 특히 즐겁고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담아야 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최대한 백인 위주로 출연진을 구성한다(안진, 2015).

국내 텔레비전이 이와 같은 인종주의를 유지·강화·전승시킨다면 한국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힘겹게 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다문화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사회과학적 작업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이상길·안지현, 2007).

4) 국내 미디어의 이주민 및 외국인 재현

(1) 국내 다문화 프로그램의 역사

한국 방송에 이주민 및 외국인이 출연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72년 방송인 김 하버드를 시초로 이따금 ‘푸른 눈의 외국인’이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로버트 할리와 이다 도시 등이 빈번히 출연하면서 이른바 ‘외국인 연예인 1세대’로 불렸다(안진, 2015).

다문화 프로그램이 탄생하기 전까지 한국 텔레비전 속 이주민과 외국인은 주로 명절 특집 프로그램 따위에서 우리 가요를 부르고 장기자랑을 하며 한국인의 눈길을 끄는 신기한 대상에 불과했다 (팀 알퍼, 2014, 10, 13).

한국 텔레비전에서 본격적으로 외국인을 조명한 것은 2003년 MBC <느낌표>의 코너 <아시아! 아시아!>⁴⁾가 처음이었다. 요즘 성행하는 포맷인 외국인 토크쇼는 2004년 SBS의 <외국인 대설전>이 첫 사례였지만 당시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국가적으로 다문화 정책이 활발해진 2000년대 중반부터 공영방송 KBS가 한국의 다문화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다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데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러브 인 아시아>를 편성해 하나의 코너 수준이 아닌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주민, 그 중에서도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가정과 삶을 보여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KBS의 명성에 걸맞게 꾸준히 높은 시청률을 달성하며 무려 10년간 방영됐다.

2006년 KBS는 '글로벌 토크쇼'라는 포맷으로 <미녀들의 수다>⁵⁾를 편성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출연자가 절대적 역할을 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성공시대를 열었다. <미녀들의 수다>가 보여준 외국인 출연 방식의 성공은 10여 년 후까지 이어져, 2014년부터 JTBC가 방송한 비슷한 포맷의 외국인 단체 토론 프로그램 <비정상회담>⁶⁾은 최근까지도 큰 인기를 끌었다. 다문화 프로그램은 이 같은 토크 형식 외에도 리얼 버라이어티 등 새로운 포맷들로 다양화되고 있다.

(2) 국내 미디어의 이주민 및 외국인 재현에 대한 선행 연구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미디어의 이주민·외국인 재현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도 점차 증가해왔는데,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 각 집단별로 혹은 텔레비전(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 토크쇼 등 프로그램별), 영화, 광고 등 각 미디어별로 연구가 이뤄졌다(김경희, 2009; 문영숙, 2014; 원용진, 2003; 이경숙, 2008; 이은영, 2013; 정의철·이창호, 2007; 황영미, 2011). 대부분의 연구에서 백인을 향한 동경과 유색인을 향한 무시 혹은 온정주의적 시선이라는 미디어의 차별적 재현을 지적했고, 주로 여성 결혼이민자 같은 특정 집단이 뉴스, 드라마

4) 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상봉을 다룬 코너였다.

5)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여성이 한국 문화에 관해 이야기하는 단체 토크쇼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 3년 여 동안 인기리에 방영됐고, 2010년 두 번째 시즌인 <미녀들이 수다 2>와 남성 외국인을 포함한 파생 프로그램 <쾌적한국 미수다>까지 탄생시켰다.

6) 여러 국가에서 온 외국인 남성이 둘러앉아 특정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는 회담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 지상파가 아닌 종합편성채널임에도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고, 포맷이 해외에 수출되기도 했다.

등에서 어떻게 사회적 소수자로 재현되는지 분석했다. 인종은 물론 젠더 문제와 아울러 여성 외 국인에 대한 차별적 재현 방식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예를 들어, 김윤희·최혜실, 2010; 백선기·황우섭, 2009; 이경숙, 2006; 이명현, 2009; 홍숙영, 2013).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디어와 다문화 연구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이며 어떤 부분을 더 연구하고 고민해봐야 할 것인가? 주류 미디어의 재현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뉴스, 드라마는 물론 코미디, 토크쇼 등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다양한 장르 스펙트럼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다(Downing, 2014). 그런데 현재까지 한국 다문화 연구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와 직접적 영향을 주고받는 다문화 TV 프로그램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사례가 부족하다. 그간의 연구 중 다문화 프로그램을 본격 연구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나마 존재하는 연구들도 특정 프로그램 한 두 사례 정도를 분석하는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예를 들어, 김윤희·최혜실, 2010; 원용진, 2003). 다시 말해, 다문화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하여 분석한 종합적인 양적 연구가 부재한 것이다. 개별 프로그램 분석만으로는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차이, 시기별 변화 등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기 어렵다.

5) 다문화 프로그램의 이주민 및 외국인 재현과 관련 변인

(1) 재현율

재현(representation)이란 미디어가 어떤 대상을 노출·묘사하는 것이다. 이를 나타내는 척도인 재현율(representation ratio)은 미디어에서 연구 대상이 묘사되는 양이 실제 그 대상의 사회 구성 비율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내용분석을 통해 미디어 속 재현 정도를 측정하고 실제와 비교하여 그 차이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Wimmer & Dominick, 2011/2014).

텔레비전에서 특정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절대적 재현 양이 부족하면 그 문화는 다양한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재현되기보다는 소수의 전형적 묘사만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러 궁극적으로 주류 사회의 다문화 이해 부족을 불러올 수 있다(Hargrave, 2002). 그럼에도 텔레비전에서 이주민·외국인이 집단별로 과대/과소 재현(over/under-representation)되고, 특히 백인이 과대 재현된다는 사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연구자에 의해 지적되어왔다(안진, 2015; 이은영, 2013; Downing, 2014; Hargrave, 2002, 등).

한국은 백색에 대한 선망과 유색에 대한 거리 두기라는 한국식 인종주의를 토대로 백인 위

주의 텔레비전 이주민·외국인 재현이 있어왔다. 이은영(2013)은 텔레비전 드라마 내용분석을 통해, 한국에는 두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치 다양한 국적과 문화권 출신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큰 키와 밝은 피부색의 외국인으로 한정됨을 밝혔다. 팀 알퍼(2014, 10, 13)는 한국 거주 이주민·외국인 중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은 중국인이고 그 다음으로 큰 집단인 미군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얼마 되지 않는데,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왜 그렇게 미국인이 많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텔레비전에 나오는 외국인 출연자가 모두 백인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색인종 출연한다 해도 ‘형식적 구색 맞추기(tokenism)’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지적이다. 영국 방송 제작자들은 미디어가 출연진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유색 인종을 끼워 넣는 식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성의 풍부함’을 갖춘 프로그램 편성을 해야 한다고 인지했다. 수용자들도 비난을 피하기 위해 유색 인종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역할에 끼워 넣는 형식주의에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Hargrave, 2002). 그러나 아직 한국의 미디어 제작자와 수용자는 이러한 형식주의적 재현을 크게 인식하지 않거나, 인식은 해도 구체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르지 않은 듯 보인다.

인종별 재현율 차이는 백인과 유색인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미디어도 유색인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세부 집단에 따라 또 재현 정도를 달리한다. 이은영(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출신 국가 수는 15개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 내 이주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나 조선족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의 경우에도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훨씬 많음에도 두 집단은 비슷한 비율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타 유색인 집단보다 과대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김경희, 2009).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 중에서도 백인은 극소수인데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지만 조선족 등은 거의 배제된다(정연구, 2009).

선행 연구에서의 일관된 결과를 고려할 때, 다문화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집단별 재현율의 차이를 예상하게 된다. 그간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백인과 유색인 등 인종별(Monk-Turner, et al., 2010), 출신 국가별(김도진, 2015; 이은영, 2013), 혹은 이주 유형에 따른 이주민 집단별(이명현, 2009; 정의철·이창호, 2007) 특정 하위 집단에 주목하여 이들의 재현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에 머물러왔다. 본 연구는 각 분류 방식의 일원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인종과 이주 유형별 차이를 함께 분석하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인종(백인과 유색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출신지에 대한 추가 분석을 했다. 또한, 한국의 독특한 다문화 전개를 고려

해 이주 유형에 따른 재현의 차이를 탐색했다. 이를 위해 이주민 및 외국인의 집단별 실제 한국 체류 인구 구성과 다문화 프로그램 내 재현 비율을 비교한 재현율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했다.

연구 기설 1-1. 한국 TV의 다문화 프로그램 속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인종 중 백인의 재현율은 유색인의 재현율보다 높을 것이다.

연구 문제 1-2. 한국 TV의 다문화 프로그램 속 이주민 및 외국인의 재현율은 이주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다문화 프로그램의 장르

방송 프로그램은 크게 보도, 오락, 교양 등으로 분류된다(방송법, 제2조 제16호, 2016). 이주민 및 외국인이 프로그램 전개의 중심이 되는 다문화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 스튜디오 토크나 개인적 일상을 보여주는 형식 혹은 리얼 버라이어티로, 오락이나 교양에 속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종별 재현율의 차이는 장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마스트로와 그린버그(Mastro & Greenberg, 2000)는 라티노가 주로 범죄 드라마 장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한국의 경우,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 및 유색 인종은 공익성이 강조되는 교양 프로그램에서 주로 재현되고, 시청자의 눈길을 끄는 데 주안점을 둔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백인 선호 경향이 뚜렷하다(유경한·유용민, 2016). 대표적 예능 토크쇼인 〈미녀들의 수다〉에서 동남아시아 출신 패널이 발언하는 비중(8.7%)은 서구 출신 출연진(40.6%)과 비교해 턱없이 적었다. 비슷한 포맷의 〈비정상회담〉에서도 구미계 백인 출연자가 전체 출연진의 절반 가량인 46.7%를 차지했고, 유색 인종은 다 합쳐서 15.6%에 불과했다(김도진, 2015). 이렇게 백인 위주의 게스트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예능 토크쇼에서 서구의 개방적 문화는 마치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양 표현되면서 백인에 대한 동경을 이끈다(손희정, 2015). 이와 대조적으로 주로 동남아시아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는 그 재현 수가 많지 않고, 재현되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이 존중받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가치관을 강요받는 방식으로 그려짐으로써 동화주의를 지속시킨다(이명현, 2009).

이처럼 개별 다문화 프로그램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 장르에 따른 불균형한 인종 재현을 발견했으나, 개별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전체에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

7) 이러한 인종 구분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그림에도 다문화 미디어 연구에서 이런 방식이 쓰이는 이유와 구체적 구분 방식은 연구방법 부분을 참조.

는 다문화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장르에 따라 인종별 재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각 장르의 특성과 연계해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과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연구 가설 2-1. 한국 TV의 다문화 프로그램 중 교양 장르에서는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인종 중 유색인의 재현 빈도가 백인의 재현 빈도보다 높을 것이다.

연구 가설 2-2. 한국 TV의 다문화 프로그램 중 오락 장르에서는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인종 중 백인의 재현 빈도가 유색인의 재현 빈도보다 높을 것이다.

연구 문제 2-3. 한국 TV의 다문화 프로그램 속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이주 유형별 재현 빈도는 장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시기별 변화

사회가 변화하면 다문화 프로그램도, 그리고 그 속의 이주민과 외국인 재현도 변할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는 본래 시간에 따른 사회 현상의 변화를 추적하고 설명하고자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종단연구는 횡단연구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관계로 그 사례가 많지 않다(Wimmer & Dominick, 2011/2014). 다문화 관련 미디어 연구도 예외는 아니다.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수 인종의 재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규명한 사례가 더러 있지만(예를 들어, Greenberg & Collette, 1997; Monk-Turner et al., 2010 등) 국내의 경우 다문화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5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종단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국 정부는 2005년부터 다문화주의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여러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이상길·안지현, 2007; 이은영, 2013). 미디어 역시 자연스럽게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시작했으며,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다문화 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2005년 캐치프레이즈를 ‘다문화 사회’로 삼고 방송 전반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 드라마 속 외국인의 출연 빈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보다 이후에 외국인 출연 빈도가 48회에서 142회로 3배가량 증가했다. 외국인이 출연한 드라마의 편수도 24편에서 61편으로 2배 이상 많아졌다(이은영, 2013). 해외 방송에서도 장르를 막론하고 전체 소수 인종 재현의 양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Hargrave, 2002; Miller, 2016)도 한국 다문화 프로그램 증가에 영향을 준 듯하다. 또한 <미녀들의 수다> 같은 시청률이 높게 나온 다문화 프로그램의 선례가 제작진의 외국인 섭외 의향과 외국인 출연 프로그램 기획 의향을

높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안진(2015)이 설명했듯 방송 제작자들은 과거의 성공 사례를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코스비 쇼>의 성공 이후 소수 인종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한 바 있다(Downing, 2014).

전체 이주민 및 외국인 재현의 증가 속에서도 각 인종별 재현 비율에 큰 진화가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 일찍부터 흑인의 재현이 풍부해지기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동양인이나 원주민은 충분히 재현되지 않는 구태가 이어져왔다. 1994년이 되어서야 아시아계를 주역으로 삼은 시트콤⁸⁾이 탄생했지만 한 시즌만 방송된 후 종영했고, 2012년에 가서 인도계 미국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또 다른 시트콤⁹⁾이 제작되었다(Miller, 2016). 소수 인종 중 흑인만 주로 재현하는 모습은 영국도 마찬가지다. 영국 방송에서 소수 인종 재현 증가의 대부분은 흑인에 집중되었고, 아시아계의 재현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영국 소수 인종 중 흑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 등 남아시아인의 재현에서조차 아무런 변화와 진전이 없었다(Hargrave, 2002). 국내에서도 상황은 비슷해, 이은영(2013)은 한국 드라마 속 외국인 등장인물의 인구학적 특성에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으며 외국인 재현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고정관념을 반영한다고 했다.

이처럼 방송 프로그램의 소수 인종 재현에 대한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 더 나아가 오랜 기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때 연구결과에 의미를 더해준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종단연구를 통해 인종별 적정 재현율이 개선되는지를 관찰해오고 있음에 유의하여, 국내 다문화 프로그램의 약 14년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2003년-2016년의 14년 기간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국내 다문화 프로그램의 이주민·외국인 재현에 진화가 있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연구 문제 3-1. 한국 TV의 다문화 프로그램 속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인종별 재현 빈도는 시기에 따라 변화했는가?

연구 문제 3-2. 한국 TV의 다문화 프로그램 속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이주 유형별 재현 빈도는 시기에 따라 변화했는가?

8) 마가렛 조(Margaret Cho) 주연의 <올 아메리칸 걸>(All American Girl).

9) 민디 케일링(Mindy Kaling) 주연의 <더 민디 프로젝트>(The Mindy Project).

3. 연구 방법

1) 내용분석의 개요 및 코더 간 신뢰도

본 연구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이주민 및 외국인 재현을 체계적·객관적·수량적으로 분석하고자 내용분석(Wimmer & Dominick, 2011/2014)을 실시했다. 한국 TV의 다문화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분석을 위해, 이 프로그램 유형이 처음 탄생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방송된 모든 다문화 프로그램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이 중에서 내용분석 할 표본을 추출했다.

코더 간 신뢰도 확보를 위해 연구자 포함 2명의 코더가 전체 표본 중 10%에 해당하는 6개 에피소드(총 분석 단위 수: 41)를 무작위 추출해 내용분석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해 코더 간 신뢰도를 검사했다. 프리론(Freelon, 2010)의 코더 간 신뢰도 검사 프로그램 ReCal을 사용해 각 변인별 스코트의 파이 지수(Scott's pi)를 구했다. 신뢰도 검사 결과 이주 유형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1을 얻었으며, 이주 유형 역시 .85의 높은 신뢰도가 나왔다.

2) 분석 대상 및 분석 단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다문화 프로그램은 '한국인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이주민 및 외국인' 관련 주제를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핵심적, 반복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이 주 시청 대상인 전문 채널의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이 주제인 프로그램, 이주민·외국인이 내용의 핵심이 아니라 보조적 역할로 출연하는 프로그램, 특정 에피소드에만 이주민·외국인이 출연한 프로그램, 총 에피소드 편수가 5회 이하인 프로그램, 그리고 일회성 특집 프로그램 등은 제외했다.¹⁰⁾

오락 장르는 간혹 특정 프로그램 내 하나의 코너가 이주민·외국인을 핵심 소재로 하여 반복적으로 방송되는데, 이 경우 해당 코너만을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했다.¹¹⁾ <글로벌 붕어빵>과 같이 원래는 다문화 프로그램이 아니었다가 중간에 다문화로 주제를 변경한 경우는 처음 다문화 소재로 방송을 시작한 날부터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다문화 프로그램의 목록이다.

10) 북한 이탈 주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의 경우, 북한 이탈 주민이 분단을 통해 남한과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는 점에서 다문화 논의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11) 이 경우 <느낌표 - 아시아! 아시아!>와 같이 기호(-)를 사용해 프로그램명과 코너명을 함께 표기했다.

표 1. 2003-2016 다문화 프로그램 목록

번호	시작	종영	방송사	프로그램명	장르
1	2003	2005	MBC	느낌표 - 아시아! 아시아! ¹²⁾	오락
2	2004	2004	SBS	외국인 대설전	오락
3	2005	2015	KBS	러브 인 아시아	교양
4	2006	2010	KBS	미녀들의 수다	오락
5	2007	2008	SBS	일요일이 좋다 -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오락
6	2008	2008	코미디TV	월드 보이즈 ¹³⁾	오락
7	2009	2009	KBS	도전! 디미방	교양
8	2010	2010	KBS	쾌적한국 미수다	교양
9	2010	2014	MBC	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	교양
10	2012	2013	EBS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교양
11	2013	2013	KBS	오아시스	교양
12	2013	2013	TV조선	글로벌 토크쇼 헬로헬로	오락
13	2013	2015	EBS	다문화 사랑	교양
14	2013	방영중	EBS	다문화 고부 열전	교양
15	2013	2014	tvN	섬마을 쌤	오락
16	2013	2014	MBC	글로벌 홈스테이 집으로	오락
17	2014	2017	JTBC	비정상회담	오락
18	2014	2015	MBC	헬로! 이방인	오락
19	2014	2015	SBS	글로벌 붕어빵	오락
20	2015	방영중	KBS	이웃집 찰스	교양
21	2015	2016	JTBC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오락
22	2015	2016	EBS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교양
23	2015	2016	KBS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오락
24	2015	2018	EBS	글로벌 이빠 찾아 삼만리	교양
25	2015	2015	TV조선	글로벌 반상회 국제아파트	오락
26	2016	2016	tvN	비벨 250	오락

일리(Eleey, 1969)는 표집(sampling) 비교연구를 통해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용분석 시 가을 시즌 일주일 치의 표본을 분석하는 것이 일 년 중 무작위 추출한 표본으로 분석하는 것만큼 모집단에 일반화가 가능함을 밝혔다. 이후 여러 연구가 일주일 치 표본을 분석해 이 방식의 신뢰도를 입증했다(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1977; Mastro & Greenberg, 2000; Monk-Turner et al., 2010).

12) 2003년 2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1탄, 2004년 1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2탄, 2005년 8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3탄이 방송되었다. 이 중 2탄은 '아시아 속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고려인(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에 거주하는 한 민족 동포)을 다루어 본 연구의 대상인 다문화 프로그램의 조작적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13) 2008년 총 8회 방영된 리얼리티 쇼로, 6명의 외국인 남성으로 출연진을 구성한 다문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현재 코미디TV 측에서 이 프로그램의 다시보기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까지 홈페이지에서 모두 삭제하고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어 프로그램의 확인과 분석이 불가능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의 전체 모집단에서 1년 단위로 그 해에 방영한 모든 프로그램 별로 에피소드 1편씩이 포함되도록 분석 대상 표본을 추출했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4종의 다문화 프로그램이 편성되었기에 각 프로그램별로 1편의 에피소드씩 4편이, 2014년에는 9종의 다문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으므로 프로그램 당 1편씩 9편의 에피소드가 표본에 들어갔다. 해마다 가장 많은 수의 다문화 프로그램이 방영된 주(週)를 선택하여 그 주에 방영된 에피소드들을 표본에 포함시키되, 만약 다문화 프로그램 방영 수가 여러 주에서 동일할 경우에는 가을 시즌인 10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주를 표본 주로 선택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14년 동안 방영된 25종의 다문화 프로그램(〈월드 보이즈〉 제외) 모집단에서 총 62회의 에피소드가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방영 프로그램이 1종밖에 없었던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에피소드 1편씩만이, 방영 프로그램이 많았던 2015년에는 12편의 에피소드가 표본에 포함됐다. 내용분석의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주민 및 외국인 출연자이며, 총 383개의 분석 단위가 포함되어 분석됐다. 에피소드 전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주연과, 핵심은 아니더라도 수차례 이상 등장하는 조연은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 특정 장면에서만 잠시 등장하는 출연자는 제외했다.

3) 주요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유목 구성

(1) 인종

인종을 연구 대상으로 할 때, 백인과 유색인이라는 인종 구분은 외모와 피부색을 중심으로 나누는 주관적 분류이며 이론적으로 엄밀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적 재현을 확인할 필요성 때문에 미디어 연구자들은 다문화 콘텐츠 내용분석에서 이 방식을 불가피하게 사용했다. 본 연구도 개인적 특성보다는 피부색에 따라 이주민 및 외국인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한국의 뚜렷한 다문화 상황을 고려해 백인과 유색인이라는 인종 구분을 사용했다. 하지만 분석 유목의 조작적 정의를 최대한 정교화하여 코딩상의 혼란을 줄이고, 인종 외에도 이주 유형, 출신 국가와 지역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 분석을 시도했다.

이주 유형은 방송통신위원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3)이 국내 거주 외국인 관련 통계와 법률을 바탕으로 분류한 이주민 유형을 준용했다. 이 유형의 유목은 이주노동자(전문인력/단순기능인력),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난민, 다문화가족 자녀 그리고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 국적 동포)로 구성되어있는데, 본 연구의 연구 목적상 재외동포 유형은 제외하고, '알 수 없음' 항목을 추가했다.

(2) 재현율

재현율은 빈도분석으로 얻은 다문화 프로그램 내 집단별 재현 비중을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5) 통계연보의 체류외국인 현황과 방송통신위원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3)의 2011년 이주유형별 현황 분류 자료를 통해 얻은 실제 인구 비중으로 나누어 계산했다. 이는 휘트니 등(Whitney, et al., 1989)의 주목률(attention ratio) 계산법을 응용한 것이다. 휘트니 등은 미국 텔레비전 뉴스 보도의 불평등한 주별 뉴스 비중이 실제로 얼마나 의미 있는지 밝히기 위해, 주별 보도 비율에서 미국 내 각 주의 실제 인구 비율을 빼 비교한 도미니크(Dominick, 1977)의 주목 지수(attention index)를 나누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주목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결과 수치가 1을 기준으로 높거나 낮게 표현되어, 재현의 정도가 인구 비중 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 혹은 적은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장르 및 소재

다문화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른 이주민 및 외국인 재현 양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프로그램 장르 유목을 교양과 오락으로 구성했다. 교양에는 교육, 정보, 시사교양 등으로도 불리는 교육적·공익적 프로그램이, 오락에는 연예오락, 버라이어티, 예능 등으로도 불리는 오락적·상업적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장르 분류는 각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의 기록을 따르되, 공식 홈페이지에 장르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네이버의 TV 프로그램 정보 서비스를 참고했다.

같은 장르 내에서도 구체적 소재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추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에피소드 소재 유목을 추가했다. 소재는 이은영(2013)의 연구를 참고하고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를 조사해 사전 코딩에 사용해 본 후 최종적으로 6개 소재(한국 생활/한국 문화, 모국 방문, 연애/성/사랑, 가족, 음식, 사회/문화)를 통계 분석에 사용했다.

4. 연구 결과

14년 동안 방송된 다문화 프로그램 중 실제 내용분석에 사용된 62편의 표본 에피소드에서 분석된 이주민 및 외국인 출연자 수는 383명이었고, 이들의 출신 국가는 총 60개국이었다. 가장 많은 이주민 및 외국인이 출연한 프로그램은 〈미녀들의 수다〉(76명)였으며, 출연 횟수가 가장 많은 출연자는 샘 오취리(가나)로 총 6회 출연했다.

1) 재현율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 TV 다문화 프로그램 속 이주민 및 외국인 재현율의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백인의 재현율이 유색인의 재현율보다 높을 것이라는 인종별 차이에 대한 <연구 가설 1-1>과 이주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 문제 1-2>를 설정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인종별 재현율의 경우 백인의 재현율(2.18)이 유색인의 재현율(0.7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Z = 10.68, p < .001$). 따라서 <연구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표 3>에서 보듯이 이를 출신 대륙별로 구분해 분석할 때도 재현율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했다($\chi^2(5) = 1437.955, p < .001$). 전체 중 출연자 수가 가장 많은 아시아(45.95%)와 유럽(22.19%)을 비교해봤을 때, 아시아 출신은 재현율이 0.57로 실제보다 반 가까이 적게 재현된 반면, 유럽은 재현율이 6.79로 실제 체류 비율보다 7배에 가깝게 과다 재현되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출신 국가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표 4>에서 전 국가 중 20회 이상 재현된 국가 출신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출신 국가별 재현율의 차이도 유의미했다($\chi^2(6) = 200.396, p < .001$). 중국(0.20)과 베트남(0.55)이 실제 체류 비율에 비해 훨씬 과소 재현된 반면 러시아(6.05)는 6배 이상 과다 재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인종별 재현율

	백인	유색인
출연 비율	38.38	61.62
체류 비율	17.59	82.41
재현율	2.18	0.75

주. $N = 383, Z = 10.68, p < .001$.

표 3. 출신 지역별 재현율

	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출연 비율	22.19	1.83	13.84	45.95	6.27	9.92
체류 비율	3.27	1.36	12.96	80.88	1.12	0.41
재현율	6.79	1.34	1.07	0.57	5.58	24.41

주. $N = 383, \chi^2(5) = 1437.955, p < .001$.

표 4. 출신 국가별 재현율

	미국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일본	러시아
출연 비율	8.88	6.27	6.01	5.22	5.22	5.22
체류 비율	10.97	4.35	10.82	26.04	3.79	0.86
재현율	0.81	1.45	0.55	0.20	1.37	6.05

주. $N = 141, \chi^2(6) = 200.396, p < .001$.

〈연구 문제 1-2〉에서 제기한 이주 유형에 따른 재현율의 차이는 〈표 5〉에서 보듯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5) = 244.546, p < .001$). 전문인력 이주노동자의 재현율이 3.86으로 높은 반면, 단순기능인력 이주노동자의 재현율은 0.03으로 실제에 비해 지극히 낮은 재현율을 보였다. 결혼이민자(2.26)와 외국인 유학생(2.29)도 실제보다 두 배 이상 과다 재현됐다. 난민(4.55)은 재현 빈도가 매우 낮았음에도 실제 체류 인구가 극히 적어서 재현율이 높아 나왔다.

표 5. 이주 유형별 재현율

	전문인력	단순인력	결혼	유학	난민	자녀
출연 비율	17.13	1.66	46.41	18.78	1.66	14.36
체류 비율	4.44	50.83	20.50	8.22	0.36	15.66
재현율	3.86	0.03	2.26	2.29	4.55	0.92

주. $N = 181$. $\chi^2(5) = 244.546, p < .001$.

2) 장르와 재현 정도

한국 TV의 다문화 프로그램 속 이주민 및 외국인의 집단별 재현 빈도가 장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교양과 오락 장르에서의 인종별 차이에 대한 〈연구 가설 2-1〉(‘교양에서는 유색인의 재현 빈도가 백인의 재현 빈도보다 높을 것이다.’)과 〈연구 가설 2-2〉(‘오락에서는 백인의 재현 빈도가 유색인의 재현 빈도보다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주 유형별 차이에 대한 〈연구 문제 2-3〉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민 및 외국인 출연자들은 교양(143명)보다 오락(240명) 장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빈도로 재현되고 있었다.

인종과 장르를 교차분석 한 결과 〈표 6〉과 같이 장르에 따른 인종별 재현 빈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chi^2(1) = 36.691, p < .001$). 우선 교양에서는 유색인의 재현 빈도가 116명(81.1%)으로 백인(27명)보다 훨씬 높았다. 따라서 〈연구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하지만 오락에서는 백인(120명)과 유색인(120명)의 재현 빈도가 정확히 50%씩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연구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다시 말해 유색인은 교양과 오락 두 장르에 비슷한 비율로 출연했지만, 백인은 교양에서는 별로 재현되지 않고 대부분 오락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표 7〉과 같이 출신 지역별로도 장르에 따라 재현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5) = 35.749, p < .001$). 교양 장르에서는 아시아 출신이 93명(65.0%)으로 그 외 모든 지역 출신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재현 빈도를 보인 반면, 오락에서는 유럽 출신이 67명(27.9%)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재현되었고 북아메리카 출신이 42명(1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6. 장르에 따른 인종별 재현 빈도

	백인	유색인	전체
교양	27(18.9)	116(81.1)	143(100)
오락	120(50.0)	120(50.0)	240(100)
전체	147(38.4)	236(61.6)	383(100)

주. 각 수치는 빈도(%)를 의미.
 $\chi^2(1) = 36.691, p < .001.$

표 7. 장르에 따른 출신 지역별 재현 빈도

	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전체
교양	18(12.6)	2(1.4)	11(7.7)	93(65.0)	6(4.2)	13(9.1)	143(100)
오락	67(27.9)	5(2.1)	42(17.5)	83(34.6)	18(7.5)	25(10.4)	240(100)
전체	85(22.2)	7(1.8)	53(13.8)	176(46.0)	24(6.3)	38(9.9)	383(100)

주. 각 수치는 빈도(%)를 의미.
 $\chi^2(5) = 35.749, p < .001.$

추가로 <표 8>에서 에피소드 소재와 인종별 재현 빈도의 교차분석을 실시해보았다. 이주민 및 외국인 출연한 다문화 프로그램의 주요 소재는 총 6가지로 나타났는데, 교차분석 결과 이들 소재에 따른 인종별 재현 빈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5) = 52.674, p < .001$). 한국 생활/한국 문화 관련 소재는 전체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소재로, 백인(82명)과 유색인(109명) 모두 다른 소재에 비해 자주 재현되었다. 하지만 모국 방문과 가족에 대한 소재에는 유색인이 각각 64명(90.1%), 40명(75.5%)으로 백인보다 더 많이 재현된 반면 연애/성/사랑, 사회/문화와 같은 소재에는 백인이 각각 13명(68.4%), 23명(65.7%)으로 유색인보다 많이 재현되었다.

표 8. 소재에 따른 인종별 재현 빈도

에피소드 소재 \ 인종	백인	유색인	전체
한국 생활/한국 문화	82(42.9)	109(57.1)	191(100)
모국 방문	7(9.9)	64(90.1)	71(100)
연애/성/사랑	13(68.4)	6(31.6)	19(100)
가족	13(24.5)	40(75.5)	53(100)
음식	9(64.3)	5(35.7)	14(100)
사회/문화	23(65.7)	12(34.3)	35(100)
전체	147(38.4)	236(61.6)	383(100)

주. 각 수치는 빈도(%)를 의미.
 $\chi^2(5) = 52.674, p < .001.$

<연구 문제 2-3>의 해결을 위해 이주 유형과 프로그램 장르를 교차분석 한 결과, 장르에 따

른 이주 유형별 재현 빈도의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5) = 46.775, p < .001$). <표 9>를 보면 전체 프로그램 내 이주 유형별 비율과 비교했을 때 교양 장르에서는 결혼 이민자(66.7%)와 다문화가족 자녀(19.4%)가 많이 재현되었고, 오락에서는 전문인력 이주노동자(24.8%)와 외국인 유학생(30.3%)이 많았다. 특히 전문인력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교양에 비해 오락 장르의 출연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9. 장르에 따른 이주 유형별 재현 빈도

	전문인력	단순인력	결혼	유학	난민	자녀	전체
교양	4(5.6)	2(2.8)	48(66.7)	1(1.4)	3(4.2)	14(19.4)	72(100)
오락	27(24.8)	1(0.9)	36(33.0)	33(30.3)	0(0.0)	12(11.0)	109(100)
전체	31(17.1)	3(1.7)	84(46.4)	34(18.8)	3(1.7)	26(14.4)	181(100)

주. 각 수치는 빈도(%)를 의미.
 $\chi^2(5) = 46.775, p < .001$.

3) 방송 시기와 재현 정도

한국 TV의 다문화 프로그램 속 이주민 및 외국인의 집단별 재현 빈도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탐색하고자, 인종별 차이에 대한 <연구 문제 3-1>과 이주 유형별 차이에 대한 <연구 문제 3-2>를 설정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초기 7년 동안 총 124명의 이주민 및 외국인이 출연했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후기 7년 동안에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인 259명의 이주민 및 외국인이 재현됐다. 이주민 및 외국인의 재현이 가장 활발한 연도는 2015년(70명)이었고, 그다음은 2014년(53명), 2016년(46명)으로 최근 3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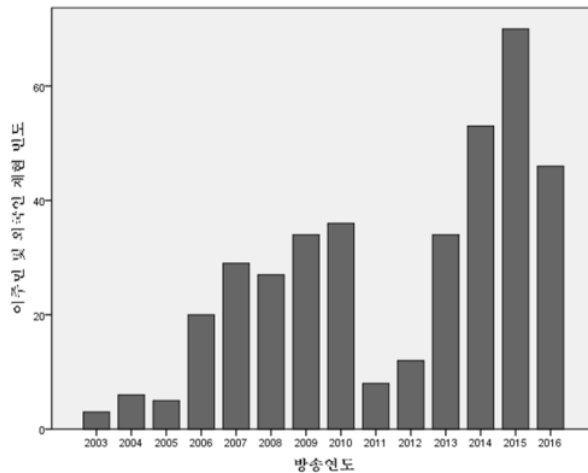


그림 1. 전체 이주민 및 외국인 출연자의 연도별 재현 빈도

이주민 및 외국인 재현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기에 앞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반적 경향을 짚어보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2003년 다문화 프로그램이 처음 등장해 이주민 및 외국인이 조금씩 재현되기 시작했다. 다문화 정책이 활발해진 2006년경부터 이주민 및 외국인의 재현 빈도는 큰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1년과 2012년에 잠시 주춤했고, 2013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해 최근 몇 년간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간에 성장세가 급감한 듯 보이는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 방송계의 다문화 바람을 주도하던 KBS의 프로그램 중 <미녀들의 수다>와 <쾌적한국 미수다>가 각각 2010년 5월과 12월에 종영한 여파로 보인다. 이후 2013년에 TV조선 <글로벌 토크쇼 헬로헬로>, tvN <삼미플렉스>, MBC <글로벌 홈스테이 집으로> 등 교양에 비해 많은 출연자가 필요한 예능 프로그램이 다수 만들어져 외국인 재현 빈도가 훌쩍 높아졌다. 지속적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매마침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이주민 및 외국인 재현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하위 집단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문제 3-1>의 인종과 방송 시기를 교차분석 한 결과인 <표 10>에서 보듯 방송 시기에 따른 인종별 재현 빈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chi^2(1) = 2.070, p = .150$). 다만 전기에 비해 후기에 백인, 유색인 모두 재현 빈도가 대폭 늘었지만 유색인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는 패턴이 감지된다. 그런데 이를 출신 지역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표 11>과 같이 두 시기별 출신 지역별 재현율의 구성 차이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5) = 11.946, p = .036$). 즉,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초반 7년간 전체 출신 지역별 출연자 중 27.4%를 차지하던 유럽 출신의 재현 비율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후반 7년 동안에는 19.7%로 줄어든 반면 북아메리카 출신이 초반 7년 8.9%에서 후반 7년엔 16.2%로 늘었다.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이 4.0%에서 7.3%로 증가하였다. 단, 아프리카 출신 증가는 특정한 샘 오취리의 중복 출연이 다수를 차지해 아프리카 출신 재현 빈도의 증가로 보기는 어렵다.

표 10. 방송 시기에 따른 인종별 재현 빈도

	백인	유색인	전체
2003-2009	54(43.5)	70(56.5)	124(100)
2010-2016	93(35.9)	166(64.1)	259(100)
전체	147(38.4)	236(61.6)	383(100)

주. 각 수치는 빈도(%)를 의미.
 $\chi^2(1) = 2.070, p = .150$.

표 11. 방송 시기에 따른 출신 지역별 재현 빈도

	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전체
2003-2009	34(27.4)	5(4.0)	11(8.9)	56(45.2)	5(4.0)	13(10.5)	124(100)
2010-2016	51(19.7)	2(0.8)	42(16.2)	120(46.3)	19(7.3)	25(9.7)	259(100)
전체	85(22.2)	7(1.8)	53(13.8)	176(46.0)	24(6.3)	38(9.9)	383(100)

주. 각 수치는 빈도(%)를 의미.
 $\chi^2(5) = 11.946, p = .036.$

표 12. 방송 시기에 따른 이주 유형별 재현 빈도

	전문인력	단순인력	결혼	유학	난민	자녀	전체
2003-2009	21(30.0)	1(1.4)	18(25.7)	29(41.4)	0(0.0)	1(1.4)	70(100)
2010-2016	10(9.0)	2(1.8)	66(59.5)	5(4.5)	3(2.7)	25(22.5)	111(100)
전체	31(17.1)	3(1.7)	84(46.4)	34(18.8)	3(1.7)	26(14.4)	181(100)

주. 각 수치는 빈도(%)를 의미.
 $\chi^2(5) = 67.960, p < .001.$

한편 <연구 문제 3-2>의 해결을 위해 이주 유형과 방송 시기를 교차분석 한 결과에서는, <표 12>에서 보듯 이주 유형에 따라 시기별로 재현 빈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chi^2(5) = 67.960, p < .001$). 초기 7년간 전체 출연자 중 30.0%였던 전문인력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2010년 이후 7년 동안에는 9.0%로 낮아졌다. 외국인 유학생의 재현 비율도 초기 41.4%에서 후기에는 4.5%로 줄었다. 반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는 각각 25.7%에서 59.5%, 1.4%에서 22.5%로 늘었으며, 난민은 이전에는 한 번도 재현되지 않았다가 후기로 와서 2.7%의 비율로 약간 재현됐다.

5. 결론 및 논의

1) 연구 결과의 요약과 논의

본 연구는 2003년 이후 한국 다문화 프로그램 속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인종과 이주 유형별 재현율, 장르에 따른 집단별 재현 정도의 차이, 그리고 시기별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표본으로 추출된 62개 에피소드의 이주민 및 외국인 출연자 총 383명의 인종과 출신지역 특성, 출연 소재 등을 내용분석 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관련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인의 재현율은 유색인의 재현율보다 높고, 이주 유형별로는 전문인력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의 재현율이 높은 반면 단순기능인력 이주노동자의 재현율은 극히

낮았다. 출신 지역별로 세분화해봤을 때도 아시아 출신은 실제보다 반에 가깝게 과소 재현되고 유럽 출신은 실제보다 7배 가까이 과다 재현되어 인종별 재현율의 차이가 큰 모습이었다. 출신 국가 중 중국과 베트남 출신의 재현율이 0.20과 0.55로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러시아인의 재현율은 6.05로 매우 높았다.

내용분석의 결과는 현실과 비교해 해석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Wimmer & Dominick, 2011/2014). 본 연구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의 인종별 재현 빈도는 유색인이 백인보다 높아 전체의 61.62%를 차지하였지만, 실제 체류자 비율과 비교하는 재현율에서는 유색인이 실제보다 훨씬 낮고 백인은 실제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미디어가 특정 인종을 과대/과소 재현하는 편향적 방송으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일으키고 있다는 여러 선행 연구(예를 들어 김도진, 2015; Downing, 2014; Hargrave, 2002; Higgs & Milner, 2005 등)와 일치한다. 동시에 뉴스, 드라마, 시트콤, 다큐멘터리, 영화, 광고 등 특정 콘텐츠 유형에서 확인된 인종 간 불균형한 재현의 문제가 국내 다문화 프로그램에도 명확히 존재함을 보여 준다. 일관되게 발견되는 인종 간 재현의 불균형에 대해 미디어 연구자의 지속적인 실태 분석과 제작자의 개선 노력 그리고 규제기관 등의 구체적 정책·제도·가이드라인 수립 등 각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단순기능인력 이주노동자의 극히 낮은 재현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단순기능인력 이주노동자의 다문화 프로그램 속 재현율은 0.03으로 매우 낮고, 절대적 재현 빈도도 극히 적어 다른 이주 유형과의 차이 분석 자체가 어려울 정도다. 이는 다문화 프로그램이 단순기능인력 이주노동자를 배제·무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단순기능인력 이주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차별적 처우가 이어지고, 차별을 당하는 쪽에서도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해 상호 간 갈등이 악화될까 우려된다.

미디어의 인종별 불평등 재현이 계속되는 이유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 때문이다. 영국 방송 제작자들은 주류 미디어가 소수 인종을 고루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부분(83%) 동의하면서도 여러 문화와 관점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질문에는 의견이 반으로 갈렸다(Hargrave, 2002). 우리의 현실도 방송 제작자의 머릿속에 내재한 백인 우호적 성향과 경쟁적 방송 환경에서 오랫동안 체득된 인종별 시청자의 선호도 인식이 서로에게 악순환적 영향을 미치며 현실을 이상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있다(안진, 2015). 이런 제작 관행의 무비판적인 답습은 우리 마음속 인종주의를 더욱 공고화해 잠재적 갈등 요인을 키울 것이다(김영임 외, 2016). 따라서 제작진이 다문화주의를 인식하고 다문화 프로그램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재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이나 정책 등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나아가 미디어 연구자는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 자료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장르별 비교에서 교양에서는 유색인의 재현 빈도가 백인보다 높았고, 오락에서는 백인과 유색인 간 재현 빈도에 차이가 없었다. 이주 유형별로는 교양 장르에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가, 오락에서는 전문인력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재현됐다. 오락에서는 백인과 유색인의 재현 빈도가 50 대 50으로 같았지만 백인의 출연은 교양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오락 장르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로써 시청률이 중요한 예능에서는 서구 출신 백인이 더 많이, 더 지배적인 모습으로 출연하고 주로 교양 프로그램에서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등의 유색인이 재현된다는 선행 연구(김도진, 2015; 유경한·유용민, 2016)의 결론이 모든 다문화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비교한 이 연구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이 결과는 교양과는 다른 오락 장르 특유의 출연자 소비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동일 프로그램 내 동일인이 패널로 중복 출연하는 사례 빈도를 비교해본 결과, 유색인이 주로 재현되는 교양 장르에서는 총 4회로 드문 반면 백인이 주된 오락 장르에서는 총 47회나 됐다. 즉 오락 장르에서는 처음부터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상품성이 보이는 ‘매력적인’ 외국인(백인)을 선택해 패널로서 반복적으로 출연시키며, 이들을 시청자가 즐겨 찾는 상품으로 만들어 사용함을 보여준다.

인종별 차이는 소재에 따라 더욱 세분화됐다. 본 연구 결과 전체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의 소재는 총 6가지로 구성되며 그 중에서도 한국 생활/한국 문화를 다루는 소재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종별로 소재의 차별화도 드러나, 백인은 연애/성/사랑, 사회/문화 소재에서, 유색인은 모국 방문과 가족 소재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아시아 출신 등의 유색인을 다룬 에피소드들은 모국을 그리워하는 내용, 모국 방문과 가슴 아픈 이별 내용 등이 잦았다. 이런 식으로 슬픔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 구성 역시 유색인 이주민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차적으로 그들은 외국에서 온 이방인이라는 ‘우리’와 ‘그들’ 사이의 경계를 만들고, 나아가 그들은 우리가 동정을 베풀어야 할 불쌍한 존재라는 인식 즉 ‘우리’ 밑의 ‘그들’이라는 계급 의식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타자화와 동화주의가 백인보다 유색인에게 빈번히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달리 백인은 연애/성/사랑이나 사회/문화 같은 소재에 많이 나오는 것은 근대화론적 시각의 발현으로 보인다. 이는 서구 출신 백인만이 사랑이나 사회에 대해 논할 선진화된 수준을 갖췄다는 편견을 내포하며, 한국 다문화 프로그램들은 끊임없이 서구 문화의 우월함과 한국 혹은 제3세계의 상대적 열등함을 비교하기 바쁘다는 연구자들의 지적(강아연, 2008, 1, 14; 김도진,

2015; 손희정, 2015; 정단단, 2012; 팀 알퍼, 2014, 10, 13)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언론 보도에서 전진국 보도에는 굿 뉴스가 많은 반면 후진국은 재난이나 갈등 중심으로 보도되는 것과 유사한 소재 구분이 다문화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방송 시기에 따른 인종별 재현 정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이주 유형별로는 초기(2003-2009)보다 후기(2010-2016)에 전문인력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재현 비율이 감소한 반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전체 이주민 및 외국인 출연자 수는 초기(124명)에 비해 후기(259명)에 두 배 이상 많아졌으며 최근 3년 간 가장 활발히 재현되고 있었다. 시기별 변화가 감지된 이주 유형에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재현이 많아진 것은 계속되는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와 그에 따른 다문화가정 2세 증가라는 현실이 미디어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초기에 볼 수 없던 난민도 후기에 조금이나마 재현되었는데, 이 역시 최근 세계 위기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주 유형별 재현율의 변화 속에서도 인종별 재현율은 여전히, 어떤 이주 유형을 제외하든 결국 백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속 인종별 재현의 변화나 개선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해외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Miller, 2016; Hargrave, 2002). 본 연구 결과에서 전기에 비해 후기에 다문화 프로그램의 수가 대폭 늘고, 비록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인종별, 지역별 재현 빈도의 균형이 일부 변화되는 모습은 국내 다문화 프로그램에서 외국인·이주민 재현 양상의 개선을 위한 출발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계속되는 인종별 불균형한 재현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 그리고 제작진의 수용적 태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의미와 한계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 프로그램의 이주민 및 외국인 재현에 대해 종합적인 양적 분석을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다문화 프로그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 향후 다문화 프로그램의 수용자 연구로 이어지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그동안 텍스트 분석이 주를 이뤄 양적 연구방법의 적용이 제한적이던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해 일관되고 종합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 내용분석을 실시해 향후 더욱 발전된 방법론이나 분석틀을 만드는 데에도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방송 제작진이 다문화 프로그램의 현재를 판단하고 향후 기획에 참고할 아이디어를 개발할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한계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 역시 차별적

시선으로 인종을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프랑스의 경우 1978년부터 각종 서베이에서 인종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정부의 인구 조사에서부터 학술적 조사, 상업적 조사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애초에 인종이라는 개념으로 시민을 분류하는 것부터가 인종 차별이라 생각하고, 모두를 아무 차이가 없는 '시민'으로서만 바라보는 일명 컬러 블라인드(color-blind) 모델이다(Keller, 2012, 4, 16). 이 시각에서는 인종 집단을 나누어 집단별 차이를 알아본 본 연구 또한 일종의 인종 차별일 수 있다. 하지만 마음속 인종주의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현재 무엇이 어떻게 문제인지 진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종 분류 기반 연구가 불가피했다. 향후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도래해 이런 방식의 연구가 필요 없어지길 바란다.

또 다른 한계는 본 연구가 전체 다문화 프로그램 출연자의 재현 정도에 대한 양적 분석 중심이라서 각 출연자의 묘사 방식 등 질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문화 미디어 연구의 또 다른 핵심 주제인 젠더가 분석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젠더는 다문화 미디어 연구에서 인종과 더불어 재현의 차이를 가장 크게 보여주는 변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예를 들어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적 묘사와 온정주의 혹은 동화주의적 접근이 학계에서 많은 우려를 받은 중요한 이슈다(김경희, 2009; 김예란·유단비·김지윤, 2009; 안진, 2015; 이은영, 2013; 정연구, 2009). 그럼에도 본 연구는 시기별 이주민·외국인의 인종별, 출신 대륙별 재현율과 재현 빈도에 집중하고자 젠더 관련 질적 분석을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의 균형을 추구하고 젠더 등 여타 핵심 주제를 포함해 더욱 완성도 높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별 논의와 연구의 의미 및 한계를 종합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단순노동인력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 다문화 프로그램의 소재 및 포맷 다양화 방안에 대한 연구 등 다문화 프로그램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세부 사항들을 보다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프로그램에서의 인종, 출신 지역, 이주 유형별 재현에 대한 양적 분석과 아울러 깊이를 가미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는 혼합 분석방법(Wimmer & Dominick, 2011/2014)을 적용한 연구도 제안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다문화 프로그램의 이주민 및 외국인 집단별 차별적 재현을 근거로, 이 프로그램 유형이 수용자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거나 다문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 유형의 인종 재현에 대한 통합 연구를 시행하는 등 관련 연구를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속적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주의에 가까워지기 위한 이론적 토대가 제공되길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아연 (2008, 1, 14). 다문화 프로그램 속 이중잣대. <서울신문>.
- 김경희 (2009). 텔레비전 뉴스 내러티브에 나타난 재한 이주민의 특성: 뉴스초점이주민과 주변인물(한국인·이주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권 3호, 7-46.
- 김도진 (2015). <외국인 집단 토크쇼의 재현 연구: JTBC <비정상회담>과 KBS <미녀들의 수다>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임·허은·양문희·최현철 (2016). <갈등과 소통>, 지식의 날개.
- 김예란·유단비·김지윤 (2009). 인종, 젠더, 계급의 다문화적 역학: TV '다문화적 드라마'의 초국적 사랑 내러티브와 자본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7권 1호, 2-41.
- 김윤희·최혜실 (2010). <미녀들의 수다>에 나타난 외국 여성 이미지 연구 - 외국 여성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제7권 제2호, 47-70.
- 문영숙 (2014). 텔레비전 광고의 소수 인종 재현에 관한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23호, 139-173.
- 박기순 (2003). 한국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연구 동향과 전망: 저널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1권 1호, 5-35.
- 방송통신위원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 백선거·황우섭 (2009). 다문화성 TV 방송 프로그램의 패러독스: KBS-TV의 <미녀들의 수다>에 내재된 '다문화성'과 '섹슈얼리티'의 혼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5호, 255-297.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내부용 통계월보 2017년 8월호.
- 손희정 (2015). 우리 시대의 이방인 재현과 자유주의적 호모내셔널리티: JTBC <비정상회담>을 경유하여. <문화과학>, 통권 81호, 364-386.
- 심훈 (2012). KBS <인간극장> 에 나타난 다문화 방영물 서사 분석. <한국언론학보>, 56권 4호, 184-209.
- 안진 (2015). 나는 왜 백인 출연자를 선택하는가?: 어느 TV 제작자의 자기민속지학적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30권 3호, 83-121.
- 원용진 (2003). 아직 아시아를 말할 때가 아니다: MBC-TV <!느낌표>의 '아시아 아시아'. <프로그램/텍스트>, 제8호, 195-206.
- 유경한·유용민 (2016, 10월). <다문화 대중콘텐츠의 유형화 및 활용방안: 2005년 이후 다문화 대중문화

- 콘텐츠 유형 분석〉.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서울: 한신대학교.
- 윤인진·송영호·김상돈·송주영 (2010).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서울: 이담 북스.
- 이경숙 (2006). 혼종적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포섭된 '이산인'의 정체성: 〈러브 인 아시아〉의 텍스트 분석. 〈한국방송학보〉, 20권 3호, 239-276.
- 이경숙 (2008). 미디어에 비친 다문화 사회: 드라마 주인공이 된 '불법 체류자'. 〈신문과 방송〉, 453호, 116-119.
- 이명현 (2009).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에 재현된 결혼이주여성: 〈사돈 처음뵙겠습니다〉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통권 6호, 57-79.
- 이상길·안지현 (2007).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58-83.
- 이수범·장성준 (2011).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1권 1호, 257-288.
- 이은영 (2013). 〈한국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나타난 외국인 등장인물의 인구학적 특성과 묘사에 대한 분석: 2000-2011년 국내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방영된 드라마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인희·황경아 (2013). 다문화 관련 미디어 보도 프레임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다문화사회연구〉, 제6권 2호, 83-108.
- 이현정·안재용·이상우 (2013). 다문화 콘텐츠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언론학보〉, 57권 3호, 34-57.
- 정단단 (2012). 〈텔레비전 토크쇼가 재현하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함의: KBS2 〈미녀들의 수다〉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연구 (2009).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에 관한 서사 분석과 다문화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KRF-2008-321-B00271). 서울: 한국연구재단.
- 정의철·이창호 (2007). 혼혈인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 〈한국언론학보〉, 51권 5호, 84-110.
- 천지우 (2007, 1, 24). 호주는 백호주의로 U턴 중. 〈국민일보〉.
- 팀 알파 (2014, 10, 13). 비한국인 대변 못하는 비정상회담의 오류. 〈주간조선〉.
- 하상복 (2012). 황색 피부, 백색 가면: 한국의 내면화된 인종주의의 역사적 고찰과 다문화주의. 〈인문과학연구〉, 제33집, 525-556.
- 홍숙영 (2013). 다문화 TV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리브인 아

시아 프로그램 시청을 중심으로 한 통제집단 사후설계실험. <디지털융복합연구>, 11권 7호, 19-26.

황영미 (2011). 한국 영화에 나타난 다문화 양상 연구 - 이방인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47호, 239-262.

Burrell, I. (2014. 1. 9). Media coverage of ethnic minority Britons 'promotes racism'. *The Independent*.

Dominick, J. R. (1977). Geographic bias in national TV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27(4), 94-99.

Downing, J. D. H. (2014). Racism, ethnicity and television. In H. Newcomb (Ed.), *Encyclopedia of television* (2nd ed.) (pp. 1877-1884). New York, NY: Routledge.

Eleey, M. F. (1969). *Variations in generalizability resulting from sampling characteristics of content analysis data: a case stu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Annenberg School of Communicatio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ennsylvania.

Faber, R. J., O'Guinn, T. C., & Meyer, T. P. (1987). Televised portrayals of Hispanics: A comparison of ethnic percep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1(2), 155-169.

Freelon, D. (2010). ReCal: Intercoder reliability calculation as a web servi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Science*, 5(1), 20-33.

Greenberg, B. S., & Collette, L. (1997). The changing faces on TV: A demographic analysis of network television's new seasons, 1966-1992.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1(1), 1-13.

Hall, S. (1981). The whites of their eyes: Racist ideologies and the media. In G. Bridges & R. Brundt (Eds.), *Silver linings: Some strategies for the eighties* (pp. 28-52). London: Lawrence and Wishart.

Hargrave, A. M. (Ed.) (2002). *Multicultural broadcasting: Concept and reality*.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 Radio Authority.

Higgs, B., & Milner, L. (2005). *Portrayals of cultural diversity in Australian television commercials: A benchmark study*. Presented in ANZMAC 2005 Conference: Advertising/Marketing Communication Issues, Perth.

- Keller, G. (2012, 4, 16). Despite ethnic tensions, counting voters by race remains taboo in French presidential campaign. *Associated Press*.
- Mastro, D. (2009). Effects of racial and ethnic stereotyping. In J. Bryant & M. B. Oliver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325-341). New York, NY: Routledge.
- Mastro, D. E., & Greenberg, B. S. (2000). The portrayal of racial minorities on prime time televis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4(4), 690-703.
- Miller, S. (2016). Portrayal of race and ethnicity in popular media overview. *Salem press encyclopedia*, Retrieved from online: Research Starters, EBSCOhost.
- Monk-Turner, E., Heiserman, M., Johnson, C., Cotton, V., & Jackson, M. (2010). The portrayal of racial minorities on prime time television: A replication of the Mastro and Greenberg study a decade later. *Studies in Popular Culture*, 32(2), 101-114.
- Samovar, L. A., Porter, R. E., McDaniel, E. R., & Roy, C. S. (2013).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8th ed.). 이두원 · 이영옥 · 김숙현 · 김혜숙 · 박기순 · 최윤희 (역) (2016).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Taylor, C. R., & Bang, H. K. (1997). Portrayals of Latinos in magazine advertising.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2), 285-303.
-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1977). *Window dressing on the set: Women and minorities in televis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hitney, D. C., Fritzler, M., Jones, S., Mazzarella, S., & Rakow, L. (1989). Geographic and source biases in network television news 1982-1984.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3(2), 159-174.
- Wimmer, R. D., & Dominick, J. R. (2011). *Mass media research* (9th ed.). 유재천 · 김동규 (역) (2014). <매스미디어 연구방법론>. 서울: 센케이저러닝.

최초 투고일 2017년 12월 15일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11일

논문 수정일 2018년 6월 3일

Abstract

Immigrants and Foreigners in Korean Multicultural TV Programs

Differences by Genre and Changes over Time*

Chohee Kim

Maste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Kookmin University

Doh Yeon Kim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Kookmin University

Korean multicultural television programs have been usually studied in terms of individual program analysis. This study aims to expand the scope of multicultural program research by analyzing the programs quantitatively and comprehensively. For this purpose, a content analysis of Korean multicultural TV programs from 2003 to 2016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presentation ratio of immigrants and foreigners by race and immigration type, th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representation depending on the genres, and the changes over time. The results show that the representation ratio of white people was higher than that of non-white people. Among the immigration types, migrant workers with a professional work background and international students scored high representation ratio and migrant workers with a low-skilled background had very low representation ratio. Regarding genre, non-white people were represented more than white people in educational program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entertainment programs. By immigration type, married immigrants an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ere more highly represented in educational programs, and migrant workers with a professional work background and international students were more highly represented in entertainment programs. Lastly, there were some changes in the frequency of representation by immigration type over time, such as the decrease in the representation of migrant workers with a professional work background and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increase in the representation of married immigrants an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However, there was

no change in the frequency of representation by race and white people continued to be represented more than non-white peopl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Keywords: multicultural broadcasting, multiculturalism, representation of immigrants, representation of foreigners, racism